명상書 톺아보기

로버트 A.F 서먼의 〈분노〉

〈2〉 분노란 무엇인가?

인간의 가장 강한 에너지 '분노'



'Anger'는 영어단어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과 그리스어 성경, 그리스어로 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또는 산스크리트어나 티베트어 자료를 영어로 번역한 것에서 'Anger'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즉 어떤 다른 언어로부터 번역된 것을 읽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의하면 Anger는 고대 노르웨이어의 Angr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곤란 고뇌 심지어 고통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어원에 따르면 분노는 고통이고 고통을 느끼는데서 오고, 남에게 고통을 가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도 될 것 같다. 〈웹스터 대학생용 사전〉에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세 번째 정의 다음에 몇 가지 유용한 구절을 싣고 있다.

불쾌의 강한 정념이나 감정, 보통 상처나 모욕감에 의해 일어나는 적대감, 유의어로는 분노, 노여움, 격분, 격노, 분개, 진노가 있는데 이것들은 강렬한 불쾌감에 의해서 야기된 감정적 흥분을 의미한다.

분노는 이 그룹에서 포괄적인 용어이며, 맥락을 떠나서는 강렬함의 명확한 정도나 외면적 현현을 제시할 수 없다. 노여움은 아어로 치부되긴 하나, 좀 더 강렬한 것이다. 격분은 감정의 자기통제서 실패한 것을 의미하는데 종종 일시적인 정신 착란을 암시한다. 격노는 격분 이상으로 압도적인 정념을 함축하며 광기에 가깝다. 분개는 깊고 강렬하며 종종 의분임을 강조하는데 비열하고 수치스러운 것,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난 분노이다. 진노는 그 감정적 기반이 격분이나 분개를 의미하지만 보복하고 벌주고 복수하려는 욕망이나 의도를 의미한다.

내가 이렇게 길게 인용한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권위자들도 분노에 대해서 얼마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지를 이해하는데, 이런 불일치가 종종 실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단지 의미론적인 것임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파괴적인 감정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가장 폭넓은 용어인 '분노'는 분명히 산스크리트어에서 핵심어인 '드웨사'(dvesa)의 정확한 번역어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신약성서서 사용된 그리스어 오르게의 정확한 번역어이기도 하다.

그런데 웹스터 사전과 옥스퍼드 사전 모두 '증오'를 분노의 유의어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흥미롭다. 거기서 '증오'는 '강렬한 싫음'으로 설명되는데,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질색하다, 몹시 진저리내다와 같은 계열의 동사이다. 그래서 '증오'는 좀 더 개념적, 정신적 태도이고, '분노'는 감정적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심리학은 '증오'와 '분노' 모두에 대해서 드웨사를 사용하는데, 사실 하나의 번뇌로서 드웨사는 증노(憎怒)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실제로 티베트어에서는 쉐당(zhe sdang)으로 번역하는데 쉐는 강력한 혐오를 당은 맹렬한 공격을 의미한다. 영어에서 증오와 분노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각각에 종은 것과 나쁜 것 두 종류가 어떤 식으로 있을 수 있는지를 단번에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좋은 증오는 진실로 나쁘고 불쾌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완벽하게 건전한 태도이다. 나쁜 증오는 다른 분위기나 다른 상황에서라면 좋거나 유쾌할 수도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좋은 분노는 선한 것에 방해가 되는 나쁘거나 불쾌한 것을 파괴하려는 공격적인 정신활동이다. 나쁜 분노는 선한 것을 파괴하려는 공격적인 정신활동이다. 당분간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정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러한 구분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감정'으로 정의하면서 별로 비난하지 않는데, 그 것은 다음과 같다.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친구와 관련해서 부당하고 명백한 모욕에 대해서 명백한 복수에로의 충동이며 고통을 수반한다. 그것은 언제나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느끼는 것이다. 이것에는 언제나 모종의 즐거움(복수에 대한 기대로부터 일어나는 즐거움)이 따른다. 진노에 대해서 '그것은 천천히 떨어지는 꿀보다도 더 달콤하고 연기처럼 사람의 가슴을 감싼다' 고 잘 말하고 있다. 분노에 모종의 즐거움이 따르는 이유는 앙갚음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떠오른 이미지들이 마치 꿈에서 떠오른 이미지들이 그러하듯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분노', 불쾌서 야기된 흥분
서양선 공포 극복수단 활용
불교선 '번뇌' 통칭해 정의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죄'의 일종이라거나 치명적인 것 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분노를 완전히 정상적인 감정적 반응과 정상적인 정신태도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용한 분노에 대해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 것을 '공포'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분노가 공포를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위협으로 인지한 것을 처리할 만한 자신감을 줄 수 있다고 기술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공포로 마비될지도 모른다.

불교심리학은 공포를 분노와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시키지는 않는 것 같다. 실제 아비달마 문헌에서는 감정과 심적 태도를 해부하듯 연구하여 목록을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목록에는 공포가 없다.

유대인의 구약성경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가장 분노하는 자는 아마도 신 자신인 듯하다.

신은 세계를 창조하고 아담과 이브를 모든 동물과 함께 에덴동산에 살게 할 정도로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뱀이 이브를 부추겨 아담에게 금단의 열매를 먹도로 확신을 심어주자 신은 노한다. 신은 뱀을 저주해서 다리를 없앤다. 그리고 이브를 저주하여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고 남자에게 종속되도록 한다. 또 신은 아담을 저주하여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당도 저주하여 힘들게 노동하지 않고서는 양식을 내놓지 못하도록 한다. 신은 아담과 이브 모두를 에덴에서 추방한다.

얼마 후 신은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인 카인에게 노한다. 얼마 안 가 신은 '신의 아들'로 불리며 자신과 닮은 그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신은 자신의 마음에 무척 들었던 노아를 제외하고는 인간을 모두 파멸시키기로 결심한다. 노아는 허락을 받아서 가족, 친구들, 동물들과 함께 대피한다.

나중에 신은 바벨에 거대한 탑을 만들고 있는 인간들에게 노한다. 그래서 바벨탑을 파괴하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무리들로 흩어지게 한다. 아브라함에게는 꽤 오랫동안 친절했지만 결국 신은 소돔과 고모라에 노해서 그곳을 멸망시킨다. 그런 후에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잘해 나갔지만 이들은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집트까지 내려가야 했다. 그들은 다음 세대까지 얼마간 노예 상태로 있었는데 모세가 태어나 마침내 그들을 자유로 이끈다.

모세와 함께 신은 광포해진다. 신은 모세를 시켜서 파라오에게 자유를 요구하게 한다. 그리고 파라오의 심정을 완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약간 양보하게 만든다. 그런 후에 또 파라오를 완고하게 하고는 이집트인들을 습격하고 최초로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고 바다로 이집트인들을 유인, 그들의 군대를 파멸시킨다. 신은 바다를 건너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이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사람을 거의 파멸시키도록 돕는다.

서양에서 신은 인간에게 분노하고 또 분노한다. 그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분노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한다. 신은 진정한 처벌자이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신의 이미지가 궁극실재의 인격화된 모델이라고 세뇌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란 탁월한 에너지이며, 탁월한 현시(現示)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다. 다만 분노하는 사람이 타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적의를 압도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한에서 말이다.

이 글은 로버트 A.F 서먼의 〈분노〉(민족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출강 및 통신 2020학년도 29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9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기술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0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